

태향 :

초산부는 109명(48.7%), 경산부는 117명(51.3%)으로 비례하였다.

19. 신생아의 성별로 본 태위 및 태향에 있어서는 총 226명의 신생아 중 남아가 125명(55.3%), 여아가 101명(44.7%)이며, 초산과 경산별로 본 성별은 초산부에 비해 경산부가 남아의 출산율을 많이 보였다. 즉 남아출산율이 여아보다 25명(11.1%)으로 높다.

20. 신생아의 체중동태에 있어서는 체중 3,000~3,499g 군이 남아 53명(23.4%), 여아 56명(24.8%)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차위로는 체중 3,500~3,999g 군이 남아 51명(22.6%), 여아 28명(12.4%)이었다. 4,000g 이상군(거대아)이 남아 13명(5.8%), 여아 5명(2.2%)이다. 이로 인하여 분만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모아건강을 위하여 산전 지도가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일 농촌지역 가족계획사업 요구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권 3호, 1972.

양재모 · 김모임

이상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의 인구, 사회, 및 보건학적 견지에서 가족계획을 꼭 해야 할 제1 우선순위대상중 과반수 이상이 사용한 적이 없거나,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이 각 가정의 가족계획 요구를 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효율적 가족계획 사업을 운영하여 인구증가 문제에 다소나마 더 기여하기 위하여는 가족계획 계몽원 및 지도원에게 가족계획 우선순위 대상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여 우선순위별 가족계획 사업을 하여 피임을 꼭 해야 할 제1우선순위 대상부인은 모두 피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비실천자는 모두가 제3순위 대상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수시로 대상부인의 인구, 사회, 경제 및 보건학적 여건을 재 사정하여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교육 및 시술 활동이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일부도시 및 농촌지역의 가족계획 실천율 조사

중앙의학 24권 1호, 1973.

신덕화 · 문정순

1972년 5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서울시내 및 충청북도 옥천군, 두지역의 유배우가임여성(20~44세) 600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실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족계획 실천율은 42.8% 였고, 실시중단율은 5.5% 였다.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이 21.5%, 도시지역이 64.0%의 실시율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2. 실시중인 피임방법은 월경주기 이용자가 31.5%로 수위이며, 차위가 자궁내 장치로 26.9%, 경구투약이 21.0%의 순이었고 난관 결찰은 한명도 없었다.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을 경구약제 복용자가 49.2%로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은 월경주기 이용자가 40.6%로 수위였다.

3. 실천중단자의 중단이유는 부작용이 57.6%로 으뜸이었고, 다음이 기타로 30.3%, 그다음이 자녀를 위해서로 12.1%의 순이었다.

4. 연령별 실천율은 35~39세군이 가장 높아 60.7%, 30~34세군이 44.6%로 차위, 40~44세군이 38.0%, 25~29세군이 33.%, 20~24세군이 20.0%의 순이었다.

5. 가족계획 실천자군의 평균 초혼연령이 23.8세, 비실천자군이 22.1세로, 초혼연령과 가족계획 실천과는 뚜렷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의 평균 초혼연령이 21.3, 세도시지역이 24.2였고, 전체 평균 초혼연령은 22.8세였다.

6. 교육별 가족계획 실천율은 대학교육군이 65.8%, 고등학교 학력군이 64.9%, 중학교 학력군이 51.1%, 국민학교 또는 그 이하의 학력군은 모두 25.0% 미만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계획 실천율은 높았다.

7. 현재 자녀수와 가족계획 실천율은 실천자군이 3.05명, 비실천자군이 2.88명으로 양군의 평균 자녀수에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이 평균 3.78명, 도시지역이 2.23명으로, 전체 평균자녀수는 3.01명이었다.

8. 인공유산 회수와 가족계획 실천율은 실천자군이 평균 1.06회, 비실천자군이 0.23회로서 양군의 인공유산 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경험을 보면 실천자군이 47.4%, 비실천자군이 12.6%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이 13.6%, 도시지역이 44.7%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9.2%의 경험을 이었다.

9. 가족계획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가족계획 교육사업이 남성들과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지역 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경기도 인천시 일부 모성의 산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간호전문학교 논문집, vol. 4, pp. 1~23, 1973.

이 광 자